

부산지역 공공미술 현황과 시사점

목차

- 1 공공미술의 배경
- 2 부산지역 공공미술의 주요 현황
- 3 국내외 사례조사
- 4 시사점

요약

- 오늘날의 공공미술은 단순히 참여하는 미술에서 나아가 장소성과 예술성을 토대로 시민 주도의 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 활동을 지향하고 있음.
- 부산지역 건축물 미술작품은 미술작품 분포에 있어 심각한 지역 불균형을 가지고 있으며, 장르의 배분적 측면에서도 일부의 경우 특정지역에 집중됨. 연도별 분포를 통해서는 건축물 미술작품제도가 의무화된 시기인 1990년대 중반부터 2008년까지 급진적 상승세를 보여줌.
- 공공지원을 통한 프로젝트의 경우, 초기 환경미화 개선중심에서 이후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들로 변모하여 감. 2020년 이전 기준으로 특정지역이나 특정단체가 반복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향이 있으며, 당대 사회적 이슈를 통해 과거의 취지로 회귀하는 사례도 발생함.
- 본 동향리포트는 부산지역 및 국내외 사례를 통하여 공공미술 행정의 성과와 한계, 동시대 새로운 예술매체의 성장, 공공과 예술의 과제, 도시를 바꾸는 힘과 가치, 발상을 전화하는 가능성 등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함.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 하반기 동향리포트

- ❶ 공공미술의 배경 - 03p
- ❷ 부산지역 주요 공공미술 현황 - 04p
- ❸ 국내외 사례조사 - 09p
- ❹ 시사점 - 14p

부산지역 공공미술 현황과 시사점¹⁾

부산문화재단
김예인, 이아름

1 공공미술의 배경

■ 공공미술의 개념

- 공공미술은 여러 가지 쟁점들을 가지고 개념적 변화를 겪어옴.
 - 과거 공공장소의 오브제로서 미술작품이 설치되거나 관련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해됨.
 - 1980년 후반에는 수잔 레이시의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을 통하여 보는 미술에서 참여하는 미술로 변모함.
 - 오늘날에는 참여하는 미술에서 더 나아가 시민 주도의 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 활동을 지향함.
- 이외에도 공공미술은 동시대 여러 이슈들과 맞닿아 있어 새로운 해석이 가능함.
 - 도시계획과 관련한 도시재생, 복합장르로서 공공예술, 문화도시 등

■ 공공미술의 법과 제도

- 부산지역에서 관련법으로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 2011.07.13)'와 구·군에서 지정된 조례가 있음.
 - 해운대구와 부산진구가 2017년에 시작하여 최근 2021년 수영구가 제정함. 강서구·동구·사상구·영도구 4개 곳은 관련 조례가 부재함.
 - 주목할 점은 각 조례가 관리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비용부담조항에서는 설치비용에만 초점이 맞춰 있고 철거 및 관리에 대한 예산이 고려되지 않고 있음. 이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후관리 문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추측하게 함.
- 제도적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를 근거로 한 '건축물 미술작품'²⁾이 가장 대표적이며,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한 '공모형 지원사업'이 있음.
 - 부산지역 공모형 지원사업의 경우 대표적으로 2006년 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사업 'Art in City'를 시작으로 2020년 '우리 동네 미술' 까지 해당됨.

1) 조사자료는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참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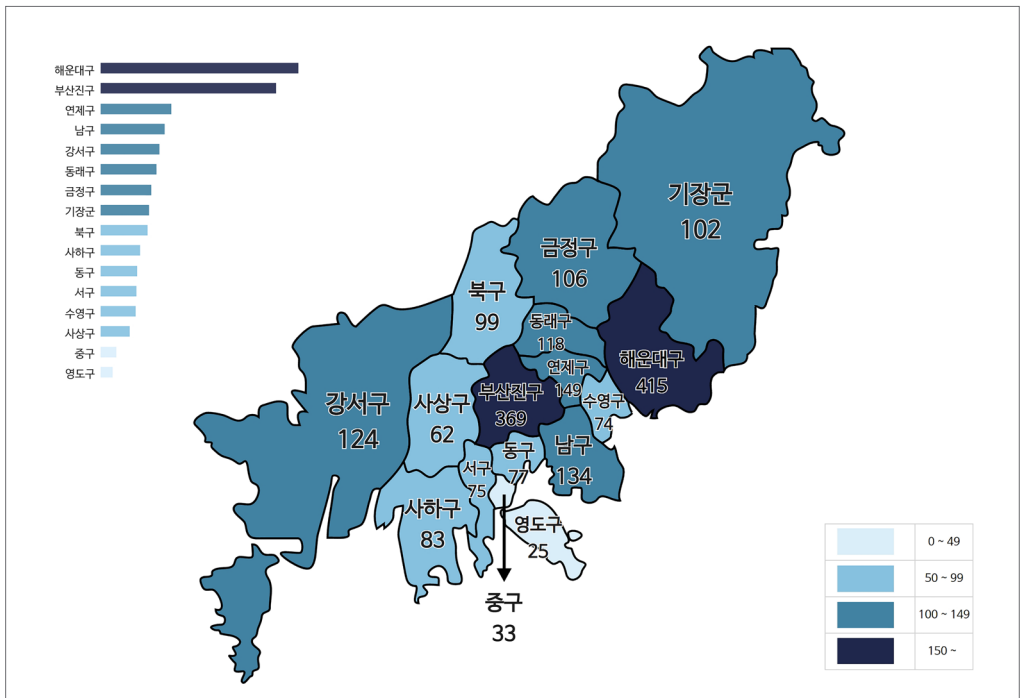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신·증축하는 건축 비용의 1%이하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거나 직접설치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한 제도임.

2 부산지역 주요 공공미술 현황

■ 부산지역 건축물 미술작품

- 부산지역의 공공미술은 크게 '건축물 미술작품'과 '공공지원'을 받아 진행된 프로젝트로 구분할 수 있음.
먼저 '건축물 미술작품' 현황을 통한 특징은 다음과 같음.³⁾
- 가장 두드러진 점은 약 16배 이상 상당한 차이로 해운대구가 가장 많은 작품수를 가진 반면, 영도구가 가장 적은 것임.
이는 미술작품 분포가 심각한 지역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줌.
- 많은 작품수를 가진 해운대구와 부산진구의 경우, 관련조례도 2017년 가장 먼저 제정함. 이는 부산에서 작품수가 급등하는 1990년 중반이후의 시기를 고려하였을 때 다소 늦은 시기로 보이나 향후 지역 내 제도마련 확산 분위기에는 선행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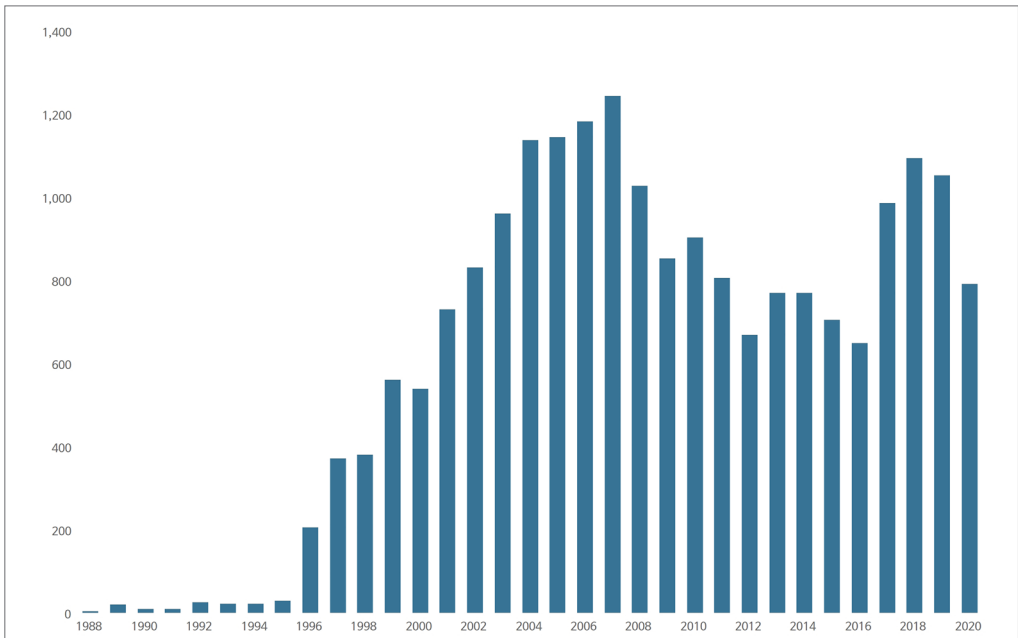
[‘부산지역 건축물 미술작품’분포 현황]



- 연도별 현황분포를 보았을 때, 1990년대 초반까지는 작품수가 거의 없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2008년까지 급진적 상승세를 보여줌. 이는 건축물 미술작품제도가 1990년 초반까지는 권장사항이다가 중반에 이르러 의무화된 제도적 배경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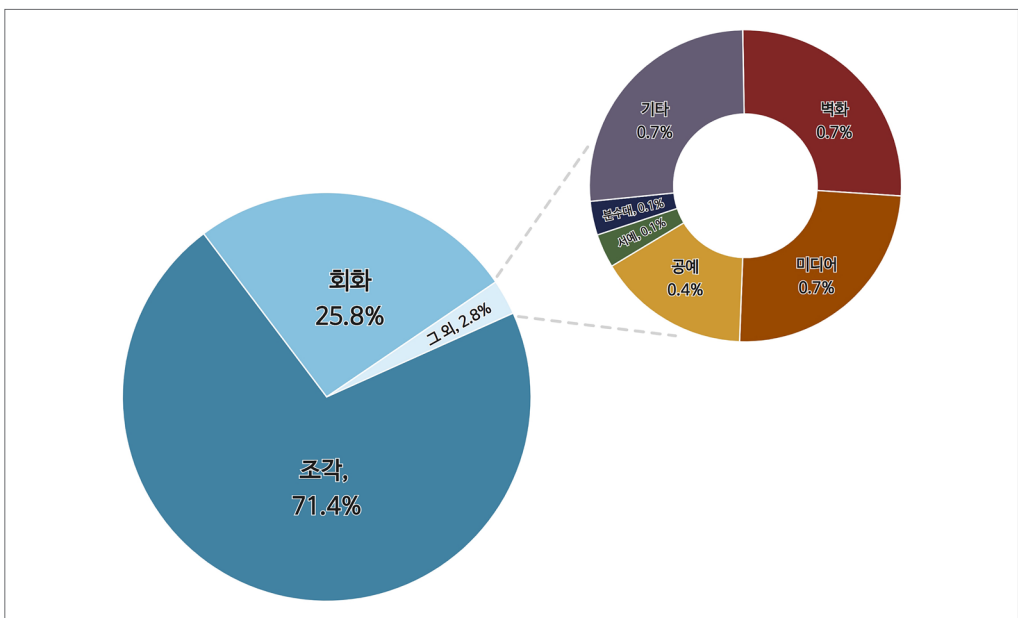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포털'(<https://www.publicart.or.kr>) 참고

['부산지역 건축물 미술작품'연도별 작품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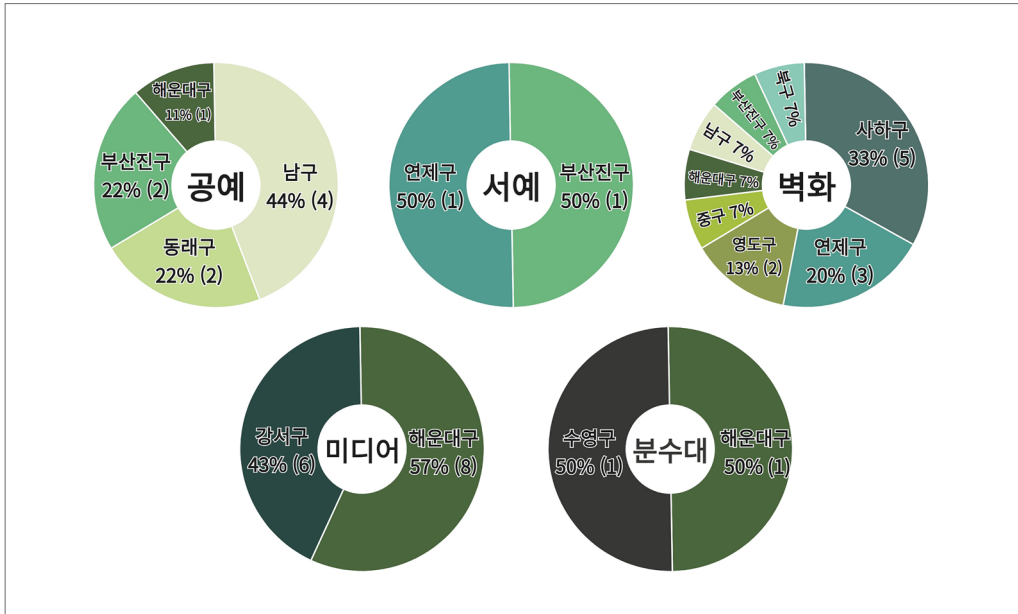


- 전반적인 장르의 배분적 측면, 전통적인 방식인 조각(71.4%)과 회화(25.8%)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벽화, 미디어, 공예, 분수대 등이 그 다음 순으로 확인됨.

['부산지역 건축물 미술작품' 장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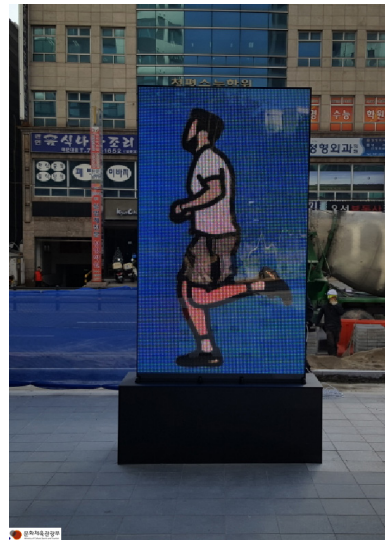


[‘부산지역 건축물 미술작품’ 장르 분포 현황]



- 일부 장르는 지역적 편차가 보임. 벽화, 공예와 같은 장르는 대체적으로 여러 지역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반면 오늘날 예술매체로서 새롭게 태되는 미디어의 경우 57%는 해운대, 그리고 나머지 43%는 강서구로 특정지역에 집중됨.
- 새로운 형식의 예술매체에 대한 시민의 수용적 태도가 지역편차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함.

[좌, 걷는사람들(강서구 김계현) / 우, Soldier(해운대구 줄리안오퍼)]⁴⁾



4) 이미지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포털’ <https://www.publicart.or.kr>

■ '공공지원' 프로젝트

- 공공지원으로 부산에서 진행된 공공미술의 사례는 예산출처에 따라 정부 지원형(국비 혹은 국시비 매칭)과 지자체 지원형(시비)으로 나눌 수 있음.
- 정부 지원형은 전국을 대상으로 기금과 공모의 방식을 채택한 것이며, 지자체 지원형은 부산지역을 한정하여 진행한 공모방식임.

[공공지원의 공공미술 사례구분]

구분	해당사업
정부 지원형	① 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사업(Art in city): 3회(2006년, 2007년) ② 마을미술프로젝트: 4회(2009년, 2012년, 2013년, 2016년) ③ 공공미술 시범사업 - 감만문화놀이터(2014~2015년) ④ 공공미술(뉴딜사업)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16개 구·군 17건(2020년)
지자체 지원형	⑤ 문화예술활동지원 시민공모지원 - 산복도로 1번지 공공미술 프로젝트(2009~2010년) ⑥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중 사·도 기획지원사업 - 도시공공미술 프로젝트(2010년)

- 부산지역 주요사례의 시간적 범위로는 2006년 '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사업(Art in city)'을 통해 선정된 '물만골 프로젝트'와 '수정동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20년 '공공미술(뉴딜사업) 프로젝트-우리동네미술'까지 볼 수 있음.

[2006년 ~ 2020년 부산지역 공공지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현황]

년도	지원사업명	no	프로젝트명	단체명	자치구
2006	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사업 (Art in City)	1	물만골 프로젝트	기획자 팀	연제구
		2	수정동 프로젝트	기획자 팀	동구
2007	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사업 (Art in City)	3	안(雁). 창(窓). 고(庫) 프로젝트	오픈스페이스 배	동구
2009	마을미술프로젝트	4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피츄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사하구
2009 2010	문화예술활동지원 시민 공모사업	5	산복도로 1번지 공공미술 프로젝트	기획자 팀	동구
2010	문체부	6	미로미로 골목길 프로젝트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사하구
	문예진흥기금 - 시·도 기획지원사업	7	복산동 공공미술 프로젝트 - 동래에서 가야 재발견하기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동래구
2012	마을미술프로젝트	8	마추피츄 골목길 프로젝트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사하구
2013	마을미술프로젝트	9	바다의 정원 - 바다를 품다	기획자 팀	수영구
2014 20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공공미술시범사업	10	일상의 재생, 감만문화놀이터	부산문화재단	남구
2016	마을미술프로젝트	11	감천 아랫마을 내려가기	아트팩토리비	사하구

2017	사하구청	12	감천 아랫마을 내려가기2	(재)아름다운맵	사하구
2020	공공미술(뉴딜사업) 프로젝트 - 우리동네미술	13	울림공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Wonderland	한국문화콘텐츠협회	강서구
		14	금정이야기 <금정의 행복>	부산시각예술회	금정구
		15	꿈을 키우는 도시	정관미술인협회	기장군
		16	안데르센의 뮤직박스	기장예술인협회	
		17	평화의 미술정원	남구 미술작가회	남구
		18	초량천 예술정원	지능디자인	동구
		19	도심 속 작은 공원	동래구 미술작가회	동래구
		20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부산진구 미술	부산진문화재단 리프로젝트 아트플랫폼	부산진구
		21	공감의 시작, 아트 감동진	올아트22	북구
		22	거리 - 움(um) 거리의 미술관	문화복지공동체 부산프린지	사상구
		23	낙동강 하구 공공미술 프로젝트 Sunset Museum	아트팩토리 비	사하구
		24	도심 속, 명상과 치유의 예술공간	부산서구미술인협회	서구
		25	민락수변공원 돛자리 공공미술 프로젝트: Waterfront door	주식회사 르뮤제	수영구
		26	배산예술정원	연제문화예술인협회의	연제구
		27	흰여울 ART ROAD	흰여울문화마을작가팀 「여울」	영도구
		28	판도라의 숲	부산원도심미술인회	중구
		29	솔랑이의 꿈	해운대미술가협회	해운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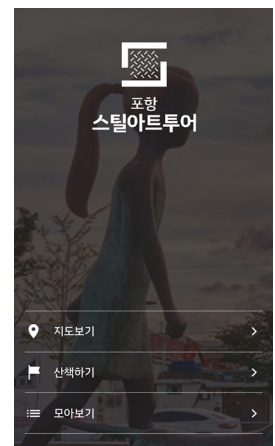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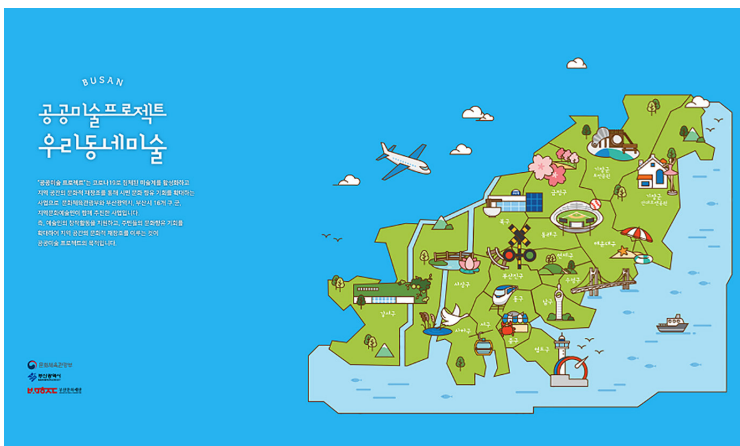
- 초기 공공미술은 공공장소의 환경미화 개선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가 이후,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들로 변모하여 감.
- 작년 예로 2020년 우리 동네 미술 - '서면애 굴다리 아트벤치길(부산진구 아트플랫폼)'이 진행한 '서면 지역민이 직접 지역을 연상하여 벽화로 완성하는 작업'은 커뮤니티 아트를 기반으로 함.
- 지역민이 작품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작품의 형식은 결과로서의 작품뿐만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작품이 이어진 사례로 볼 수 있음.

[서면애 굴다리 아트벤치길(부산진구 아트플래툰)]⁵⁾



- 2020년 이전까지 특정 지역에 특정 단체나 기획자가 반복적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향이 보임.
 - 긍정적 사례로 사하구의 경우, 이전 국비 및 지방비 매칭으로 진행된 ‘마을미술프로젝트’ 종료 이후 2017년 1억 원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후속 사업을 추가 진행함.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업이 연속으로 이어진 사례로 사업효과를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함.
 - 반대로 특정된 수행인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과 워크숍 등 공공미술 인력양성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온·오프라인 전방위적으로 내용 공유와 정보전달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이 보임.
 - 작년 ‘공공미술(뉴딜사업)프로젝트 - 우리 동네 미술’의 경우 ‘부산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포털’ (<http://bspublicart.or.kr/>)을 구축하여 결과물을 온라인상으로 공유함.
 - 타 지역 사례로 포항문화재단의 경우,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을 통해 생산된 작품을 ‘포항스틸아트투어’ 앱 개발을 통해 소개하고 있음. 이는 이용자의 접근 편리성에 한발 더 다가간 사례로 볼 수 있음.

[좌, 부산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포털 / 우, 포항스틸아트투어 앱]



5) 이미지 출처: 부산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http://bspublicart.or.kr>

- 최근 몇 년 코로나 19라는 사회적 이슈를 통해 과거 예술가 뉴딜 차원에서 시작된 공공미술로 회귀하는 사례가 발생함.
- 2017년 이후 지역 내 뚜렷한 이슈가 없던 공공미술은 '공공미술(뉴딜사업)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사업으로 총 700억 원이라는 거대규모의 정부 지원사업에 영향을 받게 됨.
- '예술가 뉴딜'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 '공공미술' 사업은 이전 미국의 대공황 시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진행된 문화뉴딜 정책으로 오늘날의 공공미술의 흐름과는 다른 경향을 나타냄.
- 이외에도 과거 '아트 인 시티(Art in city)'사업과 '마을미술프로젝트'의 경우 별도의 민간 운영조직을 구성하여 진행한 반면 '우리동네미술'은 지자체 혹은 지역문화재단을 통한 운영방식으로 관주도적 성향을 높게 보여줌.

3 국내외 사례조사

■ 벽 없는 갤러리 피카딜리 아트 테이크 오버(The Piccadilly Art Takeover)

- 피카딜리 아트 테이크 오버(The Piccadilly Art Takeover)는 아트 오브 런던 시즌(Art of London Season)에 진행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피카딜리 라이츠 및 Heart of London Business Alliance의 지원을 받아 Royal College of Art(이하 RA) 출신의 5명의 작가와 함께 진행 된 공공미술 프로젝트임.
- 런던 봉쇄 해제 후 팬데믹에 지쳐있는 도시의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벽 없는 갤러리를 주제로 런던 관광명소 피카딜리에 30개의 깃발과 13개의 횡단보도에 화려한 색이 가미된 작품들로 도시를 연출함.⁶⁾



Vanessa Jackson RA(Copyright © Piccadilly Art Takeover, 2021)

- 바네사 잭슨(Vanessa Jackson, RA)의 'UpTownDancing'은 피카딜리 인근 13개의 횡단보도에 독특한 형식의 얼룩말 크로싱을 추상콜라주 형식으로 재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이들에게 즐겁게 춤을 추고 싶은 기분을 불러일으킴.
- 마이클 아미티지(Michle Armitage), 파시드 무사비(Farshid Moussavi) 및 잉카 쇼니바레(Yinka

6) 출처: <https://www.royalacademy.org.uk/exhibition/piccadilly-art-takeover>(내용 요약)

Shonibare)를 비롯한 세명의 아티스트는 피카딜리의 문화 중심지를 따라 배치 된 30개의 깃발을 디자인함.

- 특히, 잉카 쇼니바레(Yinka Shonibare)는 런던의 랜드마크 조형물인 에로스상을 모티브로 에로스⁷⁾가 도로와 행인을 향해 장미를 쏘는 모습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함.



Eros Statue, Piccadilly Circus,
London, 1892

(Copyright © Shaftesbury
Memorial Fountain,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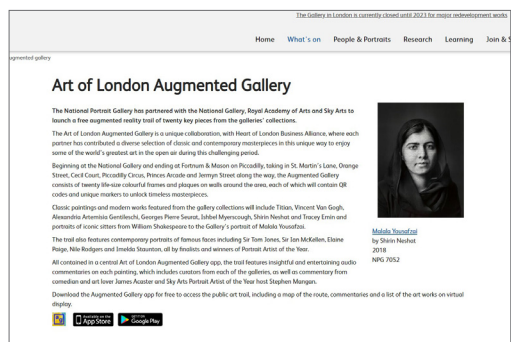


Yinka Shonibare RA, Eros and the Rose Series
(Copyright © Piccadilly Art Takeover, 2021)

- 물리적 예술작품 이외에도 미술관 내부가 아닌 도심 속에서 세계적인 작가 반고흐의 고전 작품에서 트레이시 에민의 현대 작품까지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음.
- 증강 현실갤러리(The Augmented Gallery)⁸⁾는 거리에 설치 된 QR코드를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찍어 자유롭게 개인의 미디어를 통해 작품을 관람할 수 있으며,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와 왕립 예술아카데미 및 스카이라트와 협력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임.



The Augmented Gallery



The Augmented Gallery 홈페이지

(Copyright © courtesy of the artist, 2021)

7) 피카딜리 서커스 광장에 세워진 작은 분수 꼭대기에는 활 쏘는 천사상이 서있다. 런던시민들은 그것을 에로스상이라 부르는데 이 동상은 런던의 랜드마크로 관광안내 책자에 빠지지 않으며 런던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이브닝 스탠다드의 회사 로고로 사용되고 있다.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Shaftesbury_Memorial_Fountain 내용요약)

8) Art of London Augmented Gallery는 Heart of London Business Alliance와 협력하여 야외에서 세계 최고의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고전 및 현대 걸작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https://www.npg.org.uk>)

- 본 프로젝트는 온·오프라인을 바탕으로 대중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서 공공미술의 범위를 확장시킴.

■ 공공미술과 커머셜의 경계를 허문 디스트릭트(d'strict),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

-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대형 디스플레이들이 도심 곳곳에 스며들며, 도심 속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⁹⁾는 광고만을 송출하는 상업의 영역에서 벗어나고 있음.
- 미디어 아티스트 유닛 a'district(에이디스트릭트)의 PUBLIC MEDIA ART "WAVE"는 코엑스 아티움의 가로 81m, 세로 20m에 달하는 크기의 대형 LED 스크린에서 거대한 파도를 미디어 아트로 구현하여 많은 이슈를 생산함.
- 디지털 수족관 일명 '자가격리 된 파도'라고 불리는 <wave>는 평면을 입체공간으로 착각하게 하는 아나몰픽 일루션 기법¹⁰⁾을 바탕으로 니온(N)자로 꺾인 평면의 스크린을 마치 유리 수조처럼 보이게 하여 그 안에 거론 파도가 요동치는 영상을 재현함.
- 본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전보다 갑갑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공공미술의 기술적,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Public Media Art, Wave, District, 2020
(Copyright © District, 2020)



디스트릭트 미디어 아티스트 유닛 에이스트릭트
(Copyright © 국제갤러리, 2021)

- 위의 사례와 동일 장소에서 지난 5월 호크니(David Hockney)의 신작 '태양 혹은 죽음을 오랫동안 바라볼 수 없음'을 기억하라(remember your cannot look at the sun or death for very long)도 상영됨.
- 본 영상은 해돋이를 주제로 한 2분 30초 분량의 애니메이션으로 호크니가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아이패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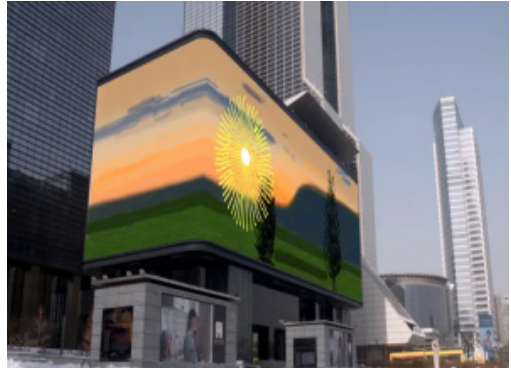
9)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gital information display, DID)를 이용한 옥외광고로, 관제센터에서 통신망을 통해 광고 내용을 제어할 수 있는 광고판을 말한다. 지하철 역사, 버스정류장, 아파트 엘리베이터, 은행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현재는 단순히 동영상 형태에 소리를 곁들인 광고를 시간대별로 번갈아 노출하는 형식이 대부분이지만, 향후에는 모션인식이나 NFC(근거리무선통신) 등을 이용해 사용자와 쌍방향으로 통신하는 형식으로 점차 옮겨갈 전망이다. TV, 인터넷, 모바일에 이어 제 4의 미디어로 주목받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디지털 사이니지 [Digital Signage]

10) 착시현상으로 입체감을 느끼게 해주는 기술로 각자 다른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배열해 하나의 이미지를 완성하는 것. (출처: <https://kr.district.com>)

만든 작품으로 공공장소에서 디지털 아트를 선보여온 플랫폼 영국의 CIRCA¹¹⁾의 설립자 겸 예술감독 조셉 오코노가 큐레이팅을 맡아 유럽 최대 규모의 스크린인 피카딜리 라이트와 협업 뉴욕 타임스퀘어 아트의 미디나잇 모먼트 프로그램, LA 펜드리 웨스트 할리우드, 서울 코엑스 케이팝 스퀘어 그리고 일본의 유니비전과 함께 매일 송출되는 광고 대신 일반대중에게 공개함.



CIRCA 런던 피카딜리 라이트



CIRCA 서울 코엑스 케이팝 스퀘어

(Copyright © courtesy of the artist, 2021)

■ 지역을 기반으로 한 예술활동 루앙루파(Ruanrupa)

- 사회참여와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공공미술의 공공성
- 루앙루파¹²⁾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6명의 작가로 구성된 예술기관으로 현재는 작가 뿐 아니라, 기획자, 디자이너, 건축가, 역사학자 등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자카르타의 도시 생태와 사회, 정치, 경제의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음.
- 이들은 예술 활동을 통해서 도시의 개발과 재개발의 문제에 예술이 개입하고, 공공예술의 형태에 시민들을 연계하며 페스티벌 등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시의 맥락 안에서 예술과 문화의 공유를 실험하고 실천하고 있음.¹³⁾
- 국내에서는 2018년 제12회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한 바 있으며, 아시아 최초 '2022년 카셀 도큐멘타 (Kassel Documenta)'¹⁴⁾ 총감독으로 지정되면서 세계적 관심과 화제를 불러 일으킴.

11) CIRCA는 영어 문법중 연도 앞에서 '대략'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이 건물은 약 1900년경에 세워졌다." 라는 문장에 사용되는 것이다. 'CIRCA 2021'이라는 것은 작가의 지금 현재에 대한 작품을 기대하게 한다. 좋은 예술 작품이란 작가의 눈으로 본 당시 세계에 대한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고, 작가가 특정한 순간을 표현한 것이 역작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도 CIRCA 2022, CIRCA 2023 등 시계처럼 멈추지 않고 시대를 조망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https://barakatcontemporary.com> 조셉오코너 인터뷰 요약]

12) 루앙루파는 일명 루루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활동 하는 예술집단으로 2000년 7명의 아티스트 그룹에 의해 설립되어 대규모 국제 전시회를 큐레이팅 한 최초의 아시아 그룹이자 최초의 미술 집단이다.(출처: <https://ruangrupa.id/en> 내용요약)

13) 출처: <https://www.theartro.kr> (인도네시아의 '아티스트 콜렉티브 스페이스' 루앙루파, 세룸, 에잉스 하우스 콜렉티브)

14) 1955년 이래 독일 카셀에서 4~5년마다 여름철에 열리는 대규모 현대미술 전시회. (출처: 세계미술용어사전)

- 2018년 'Collecting Memories: The Village of Paper-Making for Thousands of Years' 사례
 - 콜롬비아의 Arquitectura Expandida와 인도네시아의 Gudskul(ruangrupa, Serrum, and Grafis Huru Hara) 두 그룹이 함께 참여한 공동작업으로 중국 후베이성 북서부에 위치한 스옌(Shiyan)을 배경으로 함.
 - 이 프로젝트는 시골지역의 사회적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레지던시 형태로 진행됨. 공동 마을 공간의 공유실험은 새로운 도구와 전략 개발을 위해 워크샵의 형태로 진행되었고 결과물은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이용하여 "Daqian Calligraphy & Painting Paper"를 만들었¹⁵⁾

[Collecting Memories: The Village of Paper-Making for Thousands of Years]¹⁶⁾



4 시사점

■ 공공미술 행정의 성과와 한계

- 공공미술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꾸준히 성장해옴. 그러나 공공미술이 특정한 이슈로 인해 형식적으로 채택될 때 과거로 역행하는 사례도 보여줌.
- 지금까지 공공미술이 만들어내기에 집중하였다면,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후관리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함.
- 이는 기본적인 유지보수에서 나아가 작품철거를 고려한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설계단계에서 일몰제를 적용한다면 작품설치 혹은 프로젝트 실행 당시 반영된 시민들의 문화적 눈높이와 당대 예술적 가치가 일정기간 지나 변화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됨.
- 또한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전문가 그룹의 컨설팅 개입도 제도적 반영이 필요함.

15) 출처: 루앙루파 홈페이지 <https://ruangrupa.id/en/archive>

16) 이미지 출처: 루앙루파 홈페이지 <https://ruangrupa.id/en/archive>

■ 동시대 새로운 예술매체의 성장

- 부산지역 건축물미술작품 현황에서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인 조각(71.4%)이나 회화(25.8%)의 장르가 많은 반면 적은 수지만 최근 미디어(0.7%)까지 장르의 폭을 넓혀가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은 갈수록 발전된 기술의 등장과 기법들로 새로운 예술매체의 예술적 가치도 함께 성장하며 예술의 경계를 넘어가고 있음.
- 향후 우수한 창작물이 생산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흐름을 자연스럽게 수용 가능한 일반시민의 인식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함.

■ 공공과 예술의 영원한 과제

- 예술가의 예술적 가치와 대중의 취향이 대립되는 상황은 상호 소통과 작품참여의 방법으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없기에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음.
- 이와 같은 문제에서 공공미술을 설계, 진행, 결과 이후까지 각각의 과정에서 긴밀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함.
- 또한 지속적인 담론의 과정을 거쳐 이러한 갈등을 좁혀 나가도록 노력해야할 것임.

■ 도시를 바꾸는 힘과 가치

- 공공미술을 먼저 시작한 서구의 경우 일종의 퍼블릭 아트(public art)로 지칭하며 여러 사례를 통해 특정장소의 고유한 성질과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줌.
- 도시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기반으로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공공미술은 각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함으로써 일반장소를 명소로 만들고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힘을 가짐.

■ 발상을 전환하는 가능성

- 도심에 설치 된 대형 디지털 사이니지는 다수에게 비자발적으로 노출 될 수밖에 없는 특성으로 인해 공공재적인 성격이 큰 매체임.
- 이 매체는 특정장소의 시각적인 요소를 바꿀 수 있으며, 미디어 환경의 공공성과 변화하는 콘텐츠 패러다임에 맞춰 공공미술의 새로운 캔버스이자 수단으로 확장 할 수 있음.
- 아울러, 예술영역과 상업영역이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기대하게 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EL 051-745-7205~7 www.bscf.or.kr